'군산 수페리체'는 동군산의 미래가치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주변으로 발산초등학교와 2015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옥구중학교, 군산남고등학교가 인접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교통편도 좋다. 익산~대야 복선전철(예정), 전주군산 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동군산 IC) 등이 가깝다.

전셋값 인상 걱정없는 '수페리체'

동군산 공공임대아파트 429가구 공급… 5년 확정 전세가 적용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동군산에서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 '군산 수페리체'가 공급돼 화제다.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군산 수페리체'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총 492가구로 지어진다. 이곳은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전용 59㎡, 84㎡ A, 84㎡ B, 84㎡ C) 타입으로 구성된다.

특히, 단지는 5년 확정전세가로 공급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확정전세가란 말 그대로 전세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임대기간인 5년 동안 전세가는 처음 정해진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향후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시스템 에어컨 무료설치와 베란다 확장 무상 ▲어린이집 2년간 무상교육 ▲고급자재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기업 경영이 투명한 지역 향토 업체 진경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건축비는 또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군산 수페리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단지가 5년 동안 확정전세가로 공급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 하고 있다"며 "특히 확정전세가로 적용돼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군산 수페리체' 동군산 지역의 풍부한 미래가치도 누릴 수 있어 단지가 들어서는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일대는 동군산 지역으로 불린다.

동군산 지역은 군산시의 조촌동, 내흥동, 개정면, 대야면 등을 일컬여 부르는 말로, 현재 이들 지역은 개발호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풍부한 미래가치를 가진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산 수페리체'는 이러한 동군산의 미래가치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주변으로 발산초등학교와 2015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옥구중학교, 군산남고등학교가 인접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교통편도 좋다. 익산~대야 복선전철(예정), 전주군산 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동군산 IC) 등이 가깝다.

이외에도 이마트 군산점, 롯데마트 군산점, 군산농협(개정지점), 우체국, 보건소 등의 편의시설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이외에도 특화서비스로 입주민의 출퇴근 편의 및 자녀들의 안심통학을 위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동군산 지역은 다양한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교통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풍부한 미래가치가 기대돼 업계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이라며 "군산 수페리체는 이러한 동군산의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고, 주변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산 수페리체'의 모델하우스는 오는 6월 24일 군산시 백토로 176(나운동 126-3번지)에 분양개관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 만성지구 3필지 경쟁입찰

첨단산업지원용지 재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전주 만성지구 첨단산업지원용지 3필지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23일부터 재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첨단산업지원용지 3필지의 필지별 면적은 1,196㎡~3,52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11억9,480만원~41억4,422만원으로 ㎡당 평균 115만원 선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율 300%, 최고층수는 5층이하로 적용되고, 건축용도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등 다양한 건축물 용도가 허용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6월24일 ~ 7월4일까지 11일간이다.

낙찰자 결정은 7월5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7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진행된다.

또 이번 첨단산업지원용지 재공급 결과 미공급된 토지는 계약체결기간 이후 7월 14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첨단산업지원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용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으나, 일부 필지에만 입찰이 집중되면서 유찰토지가 발생했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이전기관 기술교류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지난 20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북 이전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강화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을 비롯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6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김찬준 산업연구위원은 초청강연에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의 교류, 기술이전, 기술개발 협업시스템 구축, 기업지원 등 이전 공공기관과 전북 내혁신기관·기업·대학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Co-Think 플랫폼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재)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기술교류회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혁신기관, 지역기업들이 연계 협력하여 지역산업육성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전북 성장동력산업을 고려한 지역기업 성장성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전북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과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 서순창농협(조합장 박봉주)은 22~23일 양일간 순창 지역에서 고령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의료지원과 장수사진촬영, 문화예술공연을 무료로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날 농업인 행복버스는 지역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원광대전주한방병원(병원장 유영수)의 전문의료진이 종합적인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진단에 따라 개인별 맞춤 침과 뜸 치료와 무료 약제 처방까지 이뤄져 바쁜 영농철 병원을 갈수 없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줬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복지 서비스를 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업인을 위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도농교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중기청, 기술개발 수요조사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16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차 수요조사과제를 오는 7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 기간은 2년이내, 최대 5억원(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는 10억원)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1)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하림, 토종닭 훈제 슬라이스 출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문용 대표이사)는 "신제품 '토종닭 바베큐 훈제 슬라이스'를 24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림의 '토종닭 바베큐 훈제 슬라이스'는 손으로 일일이 뼈를 발라낸 100% 국내산 토종닭 순살만을 사용하여 먹기 쉽게 가공한 제품이다. 훈제 향과 매콤한 바베큐 양념이 배어있어 닭고기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여기에 생우유를 2.7% 가미하여 더욱 부드럽고 촉촉한 속살이 특징이다.

토종닭의 경우 일반 닭에 비해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리시간이 길고 백숙과 닭볶음탕 등 그 조리법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한정적이었다. 이에 하림에서는 더운 날씨에 간편하고 이색적인 보양 메뉴로 본 제품이 눈에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종닭 바베큐 훈제 슬라이스'는 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로 2~3분이면 조리 가능하여 가정과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쌈이나 샐러드, 무침메뉴로도 훌륭하다.

하림 마케팅팀 토종닭 담당자인 정은성 과장은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무더위 손쉬운 보양 메뉴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영양가 높은 토종닭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의 '토종닭 바베큐 훈제 슬라이스'는 24일부터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구독문의 288-97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여성기업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경영전반 1:1 컨설팅 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는 22일 전주 고궁담 연회홀에서 도내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경영자문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수출입, 마케팅, 노무, 법률 등 경영전반에 대한 1:1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영자 전북지회장은 "전북 여성기업이 마음놓고 자신의 주력분야에서 성공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